



문화포커스 2021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 결산

코로나 속 현장 공연 젊은 연주자들 위로의 선율

시즌제 도입 8일 동안 펼쳐 영상 활용 랜선 공연 진일보 고봉식·길버트 전시도 주목

객석 개방했으나 관객 담보 팬데믹 영향 4팀 끝내 불참 소주제 채택 등 변화 필요 쿡쿠르는 12명(팀) 결선에

12월 3~7일엔 겨울 시즌 관악작곡쿡쿠르 처음 개최



2021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의 끝을 알리는 광복절 경축음악회가 지난 15일 저녁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려 박종성의 하모니카 협연(왼쪽)과 브랜든 최의 색소폰 협연(오른쪽) 등 열정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팬데믹 상황 아래 긴장감 속에 치러진 음악축제였다. 입도 전 연주자들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했고, 공연장에서 출연자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QR코드 인증과 발열 체크에 더해 손목에 체온스티커까지 붙였다. 마지막 날엔 사흘 뒤부터 시행될 제주도의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8일 개막해 15일 경축음악회로 막을 내린 2021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이다.

여름 시즌의 끝을 수놓은 경축음악회는 “클래식부터 팝, 재즈, 제주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연주되는 곳이 제주국제관악제의 매력”(김준곤 음악평론가)임을 또한 한 번 드러냈다. 박종성의 하모니카 협연 ‘플레드-스페인 환상곡’, 테니 박송주의 아리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 브랜든 최의 색소폰 협연 ‘섹스 팩’, 부부 가수 정미애·조성환의 ‘그대 그리고 나’ 등 위로의 선율이 공연장을 채웠다. 피날레는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과 서귀포관악단, 제주윈드오케스트라, 해군제7기동전단군악대, 해병제9여단군악대로 구성된 김홍식 지휘의 연합관악단 연주에 맞춰 제주·서귀포합창단원 85명이 마스크를 쓰고 부른 ‘한국환상곡’이 장식했다.

이번 관악제는 여름, 겨울 시즌제를 도입한 첫 행사였다. 코로나 영향에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3개 공공 공연장의 문을 열었다. 개막 공연과 광복

절 경축음악회 무대인 제주아트센터, 전문양상블 연주와 관악 독주 등이 잇따른 문예회관과 서귀포예술의전당은 공연장별 객석의 50%-30%를 개방해 현장 관람 감동을 달래줬다. 문예회관 전시실에선 ‘제주관악의 여명’을 밝히다-고봉식·길버트 전이 마련돼 제주 관악의 초창기를 조명하며 제주국제관악제의 뿌리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코로나의 영향을 벗어나진 못했다. ‘국내’ 관악제로 이끌어야 하는 현실 속에 전문관악단 1팀, 대학관악단 2팀 등 다른 지역 4팀은 개막 직전 참가를 포기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출연진의 코로나 검사 여파로 14일 문예회관 대극장 청소년관악단의 날이 축소 운영됐고 같은 날 저녁 문예회관 공연은 선제적 차원에서 취소됐다.

작년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올해는 동영상 채널 활용이 진일보했다. 영국 토리밴드 등 내년 8월 제주행을 고대하는 해외 관악단의 영상이 랜선으로 전해졌고 공연 실황도 한층 입체적으로 구성돼 “안방에서 관람하는 게 낫다”는 온라인 댓글도 달렸다.

반면 무료 공연인데도 연주장 입장객 수는 정체된 모습이었다. 내빈이 참석한 제주아트센터의 두 차례

음악회는 객석이 차지한 다른 두 공연장은 좌석 띄어앉기에도 빈자리가 많았다. 26회째를 맞는 국내 대표적 음악축제임에도 관객 개방은 여전히 과하다. 해외 쿡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국 출신 젊은 관악 주자들의 무대가 이어졌지만 마케팅은 소극적이었다. 프로그램이나 관악제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도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우리말 곡목이나 작품 설명은 없었다. 현장 사회자의 역할에 맡길 게 아니라 관악의 장점을 느끼고 저변을 넓힐 수 있는 주체 측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예술감독의 경우엔 제주국제관악제 비대면 심사 위원으로 참여했을 뿐 물리적 이동이 어려움 탓에 여름 시즌 관악제엔 함께할 수 없었다. 예술감독의 역할 재고와 더불어 ‘섬, 그 바람의 울림’이란 대주제를 유지하되 매년 연주자 선정 배경, 개·폐막 공연 프로그램 등 관악제의 방향을 나타내는 소주제 채택도 고민할 대목인 것 같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한 우리 동네 관악제는 성격이 불분명했다. 공연장을 벗어난 곳에서 뜻밖의 연주를 전하려는 취지인지, 문화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것인지, 관람객을 위

한 것인지 등 여러 물음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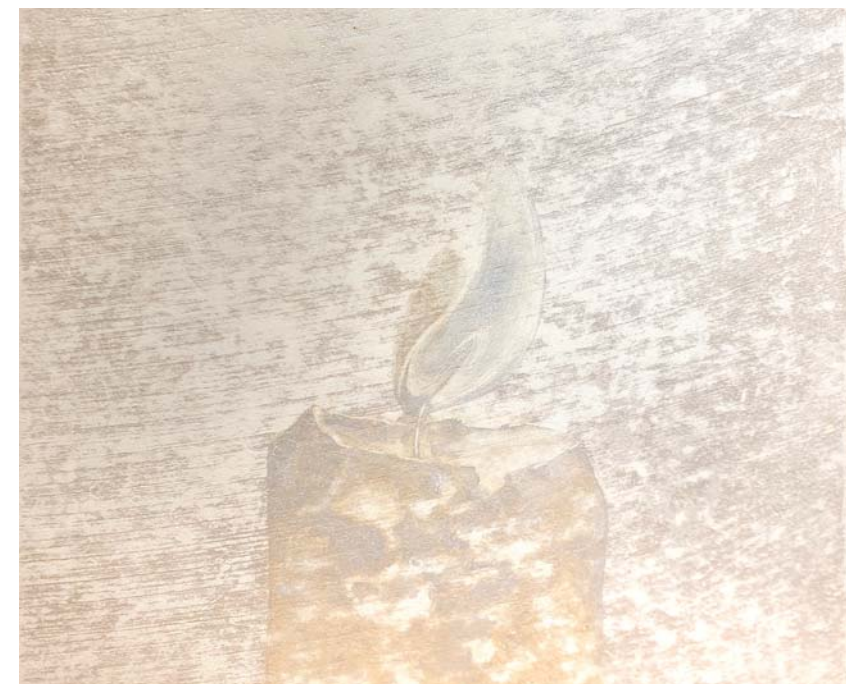
올해는 관악제를 이끄는 조직 중 하나인 집행위원장의 세대 교체 후 첫 축제이기도 했다. 향후 관악제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생길지 지켜볼 일이다. 2021 제주국제관악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금빛 바람을 몰고 12월 3~7일 제주아트센터에서 겨울 시즌을 가동한다. 관악제 기간인 지난 9~13일 1990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제16회 제주국제관악제 1~2차 영상 심사에서 추천된 4개 부문 결선 진출자들이 겨울 시즌에서 최종 경연을 벌여 입상자 음악회 무대를 갖는다. 결선 진출자는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등 부문별 3명(팀)씩으로 한국 6명, 일본 1명, 네덜란드 1명, 폴란드 1명, 독일 2명(10명), 덴마크 1명(5명)이 선정됐다.

겨울 시즌에는 특히 제주관악작곡 쿡쿠르가 사상 처음 개최된다. 전 세계 40세 미만 젊은 작곡가들이 참여해 제주민요를 바탕에 둔 관악합주곡을 창작하는 자리로 ‘서우제 소리’, ‘봉지가’, ‘계화타령’이 주제로 제시됐다. U-13밴드 콘테스트도 겨울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갤러리ED 시상전 (19)조기섭의 ‘흔’

수행하듯 비워낸 화면에 빛을 담다



은분 이용 그리고 지우기 반복 살아남은 흔적들이 빛어낸 색

그의 작업은 비워내고 또 비워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일이다. 두 가지 색조만으로 자연 공간을 묘사했던 그는 그마저 걷어냈다. 그 끝에 색의 부재가 ‘존재’한다. 누군가는 종이엔 스민 어떤 색을 말하겠지만 그건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다. 마음을 닦는 수행자처럼 색과 형상이 잠시 머물던 화면을 깎아내고 지워내는 동안 저절로 얻어졌을 뿐이다. 은분을 한국화 작업의 재료로 ‘발견’해 화면 위에 삶의 풍경을 비추고 있는 조기섭 작가다.

한라일보 1층 갤러리 이디(ED) 9인 초대전에 나온 그의 작품은 변화하고 있는 작업 여정을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지에 분체, 은분을 이용한 ‘누구의 소망’(2014), ‘공명의 시간-간극’(2016)을 지나 장지에 은분을 쓴 ‘흔’(2021)에 이르러 색을 뺀 화면과 마주하게 된다.

비우면 비로소 채워진다고 했다

가. 한동안 여러 색을 사용해 세필로 구도하듯 쌓아올리는 붓질에 몰두했던 작가는 그런 작업이 당장엔 시각적 화려함을 주지만 사유의 확장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그림 속에 차츰 색을 줄여갔고 2017년부터는 은분을 주제로 작업이 이어오고 있다.

은사와 황망한 이별을 겪은 뒤 그려진 촛불 이미지의 ‘흔’처럼 그의 작업은 적어도 다섯 차례 그리고 지우기를 거듭한다. ‘지운다’보다는 ‘갈아낸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표면을 벗기는 기계를 조심스레 다루며 앞선 흔적들을 없앤다.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국을 정리하면서 형태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고행’ 끝에 완성된 작품은 쉬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아교에 개어 칠한 은분을 다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면은 관람자의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 안에 빛이 담기고, 사연이 흐른다. 그래서 그의 그림 앞에서 우린 자꾸만 서성인다. 진선희기자

10월 제주독서대전 연계 동네책방 프로그램 공모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제주독서대전’에 맞춰 제주시 지역 동네책방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네책방은 기획 전시, 문화 공연, 작가 강연, 독서체험

등 책과 관련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8월 31일까지 이메일(jy104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우당도서관은 심사를 거쳐 총 15개 동네책방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은 제주독서대전 기간인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분산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책섬, 제주’ 홈페이지 참고. 문의 728-8341. 진선희기자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협회의 활동조항 실천을 표인함으로써 실천하여 소상공민 활동조항 실천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

세화카페

우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링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